

투명 공시

세무 정책

KT&G는 '바른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보수적인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저세율 국가로 소득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외 자회사 또한 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투명하게 세무·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며, 과세당국의 자료요청 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적법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회사의 세무 관련 임직원은 KT&G의 세무 정책에 따라 세법을 준수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외부의 모든 거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는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 가격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상기 원칙과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납부하고 있으며, 법인세 이외의 세금 또한 회계기준과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 관리 활동

세무 리스크는 회사 차원 및 운영 차원에서 관리됩니다. KT&G는 회사 차원에서 준법정신에 근거한 보수적 관점에서 세법을 해석하여 관련 세금을 계산·납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그룹 내 자회사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영 차원에서는 회사 내 각 부서가 신규 거래 또는 금액이 큰 거래에 대해 재무부와 사전 협의하여 회계기준과 세법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법인세는 K-IFRS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법인세 규정에 따라 세무 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법인세의 계산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회사 전산 시스템에 링크되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법인세 이외의 세금 또한 법인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회사의 법인세법 준수여부는 외부 세무전문가(회계법인)가 검증하고 있으며, 그룹 내 모든 자회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인세를 계산·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무전문가는 해당 지역 및 국가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가 풀(pool)에서 선정되며, 전문가 현황은 공유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주요 회계처리는 사전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 현황

2020년 당사의 연결기준 세전이익은 1조 6,121억 원, 명목세액은 4,267억 원으로 명목세율 26.47%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실질세액은 4,405억 원으로 실질세율 27.32%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2년간 명목세율 평균은 26.51%이며 실질세율은 평균 28.15%로 실질세율 평균이 1.64%p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비과세수익으로 인한 효과와 비공제비용으로 인한 효과,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미인식액 변동, 세액공제 및 감면으로 인한 효과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2020년 연결기준 세액 및 세율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9	2020	평균
세전이익	14,602	16,121	-
명목세액	3,878	4,267	-
명목세율	26.56%	26.47%	26.51%
실질세액	4,230	4,405	-
실질세율	28.97%	27.32%	28.15%

2018~2020년 연결대상 회사별 매출액 및 법인세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지역	2018	2019	2020	비고
지역별 매출액	국내	42,998	47,300	51,306	신규, 연결대상 회사별 재무제표 합산 기준
	러시아	868	794	772	
	인도네시아	2,034	2,609	1,951	
	터키	79	128	185	
	기타	2,338	2,890	3,941	
	합계	48,317	53,721	58,155	
지역별 법인세 현황	국내	3,515	3,903	4,288	
	러시아	(9)	14	22	
	인도네시아	71	89	(20)	
	터키	0	0	0	
	기타	6	15	20	
	합계	3,583	4,021	4,310	